

## 일본 현대소설의 영어 번역가 사례연구 -가와바타 야스나리와 오에 겐자부로 소설을 중심으로\*

이형진\*\* · 황선희  
(숙명여대)

### 1. 들어가는 말

문학작품의 세계화 작업에서 차지하는 번역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이미 진부해 보일 정도로 많이 이루어져왔다. 물론 번역이 문학작품의 세계화 작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만, 문학작품의 세계화는 궁극적으로 번역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번역의 전략적 역할의 중요성은 여전히 절대적이다. 한국 문학의 세계화 과정 역시 단순히 좋은 문학작품을 많이 생산하고 그 작품들을 뛰어나게 번역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번역을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자국 문학의 세계화와 해외 수용사례에 대한 연구와 분석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본

---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06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제 1저자 및 교신저자

연구는 자국문학의 세계화의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일본 현대소설의 세계화 과정을, 1968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 Kawabata Yasunari: 1899-1972)와 199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 Oe Kenzaburo: 1935-) 소설의 영어 번역가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일본은 우리와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해 있으면서 근대화 과정에서 전쟁의 폐해를 겪은 직접적 당사자였기도 하지만, 현재 동아시아권 국가들 중에서 가장 많은 서구 독자를 확보하고, 노벨문학상 수상자도 두 명이나 배출해 내는 등 결과적인 면만을 두고 볼 때 문학의 세계화의 결실을 가장 가시적으로 거둔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동안 일본 문학의 세계화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김용범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일본 문학의 영어 번역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번역가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같은 일본 문학 번역가들에 대한 연구와 분석은 한국 문학의 세계화에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다만, 이 연구는 일본 문학 전공자의 시각이 아니라, 일본 문학의 미국적 수용을 바라보는 영문학자의 시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이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해 본 연구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정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본 문학의 세계화 과정 중에서 일본 문학 작품의 ‘영어 번역’에 국한한다. 한 나라 문학의 세계화 과정은 근본적으로는 다양한 언어로의 번역과 수용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문학의 세계화’의 가장 가시적인 성과로 받아들여지는 노벨문학상의 경우를 보더라도 영어 번역 못지않게 다른 외국어로의 번역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물론 이 경우도 ‘다른 외국어’가 주로 유럽어권 언어들에 국한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차지하는 국제적 위상이 이미 그 임계점을 넘어버림으로써 영어의 영향력이 특정 국가에 국한되거나 특정 영어권 국가에 의해 주도되고 통제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고 보는 관점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Crystal 190), 문학번역에 있어서도 영어를 통한 세계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사례로는 무라카미 하루키(Murakami Haruki)의 작품, *South of the Border, West of the Sun: A Novel* (『국경의 남쪽 태양의 서쪽』)과 *The Wind-Up Bird Chronicle: A Novel* (『태엽 감는 새』)의 독일어 번역이 일본

어 텍스트가 아닌 영어 번역텍스트의 독일어 중역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하루키 자신도 작품이 번역되는 타이밍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역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루빈 385-397), 문학의 세계화라는 명제와 영어 번역 사이의 상관관계가 다른 외국어보다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음을 전략적 차원에서 인정하게 된다.

둘째, 본 연구는 ‘일본 소설’의 영어 번역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일본 문학의 세계화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양한 문학 장르에서 다발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시의 경우, 5-7-5음절의 3구로 이루어진 일본의 전통 시 양식인 하이쿠(俳句)는 이미 1910년대 에즈라 파운드(Ezra Pound) 등과 같은 서구 이미지즘(Imagism) 시인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으며, 희곡의 경우 일본의 전통극인 노가쿠(能樂)와 가부키(歌舞伎), 전통인형극인 분라쿠(文樂) 역시 1960년대 뉴욕 공연을 기폭제로 서구 문화권에 한층 가깝게 다가섰다. 이 같은 문학 장르의 다양화는 일본 문학의 세계화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학 장르 중에서도 소설, 특히 20세기 일본 현대소설의 영어 번역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 같은 연구 방향의 설정은 20세기 후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소설의 지배적 영향력 확대와 오늘날 일본 문학 중에서 세계 독자들로부터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가 소설이라는 점, 그리고 일본이 배출한 두 명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들 역시 모두 소설가라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번역가’의 역할을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문학의 세계화 과정은 번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앞서 언급했는데, 이 같은 번역과정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은 다양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번역의 주체는 번역가들이며, 이들 번역가들의 역할을 통해 한 나라의 문학작품이 다른 나라 문화권으로 전이, 수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자국 문학의 세계화 과정 이전에 이미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근대 서구 문화의 수용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일본의 근대 석학인 마루야마 마사오 교수와 가토 슈이치 교수는 『번역과 일본의 근대』에서 일본의 근대화에 큰 영향을 미친 번역의 역할을 크게 ‘첫째, 무엇을 번역했는가?, 둘째, 어떤 사람이 번역을 했는가?, 셋째, 왜 번역주의를 취했는가?, 넷째, ‘어떻게 번역했는가?’의 네 가지 측면으로 분석하고 있다(12). 비록 이 책에서는 일본의 서구 문물 수용 과정에 나

타난 번역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바꾸어 생각하면 이 같은 관점은 서구에서 동아시아 문화의 수용에 있어서의 번역의 역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위의 네 가지 측면 중에서 두 번째, 즉 ‘어떤 사람이 번역을 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 소설의 영어 번역 과정에 나타난 번역가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2. 일본 문학의 세계화의 배경과 원동력

한국과 일본은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해 있으면서 유사한 근대화 과정을 거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자국문화의 세계화라는 과정을 두고 보면 상당히 상반된 길을 걸어왔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서구에 알려진 것은 19세기부터였지만, 일본의 경우 이미 16세기부터 포르투갈 상선과 프란시스코 사비에르나 루이스 프로이스와 같은 선교사들이 도착하면서 『일본 연감』(1582), 『일본 역사』(1549)와 같은 서적이 외국어로 출판되고, 서구인들의 지속적인 관심은 1888년 뻬에르 로띠의 『국화 마담』같은 소설의 등장을 가져와 이후 푸치니의 『나비 부인』이라는 오페라로 소개되기에 이른다(김용범 외 7-8). 이처럼 초창기에는 동양의 이국성에 대한 서구의 단순한 관심이라는 차원에서 시작되었지만, 1868년 일본이 메이지 유신이라는 전환기를 거치면서 자신들의 전통적 모델과 그들이 수용한 서구 문학의 모델을 융합시킨 혼종적 문학 스타일을 창조해내면서 서구가 찾고 있던 동양의 이미지를 일본이 제공하고, 동양과 서양의 상호간의 문화적 필요성을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하면서 일본 문학의 세계화 과정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한국 문학의 세계화와 일본 문학의 세계화 과정을 비교하다보면 문학 그 자체보다도, 각 나라가 처했던 근대 정치·역사적 현실의 차이에 기인하는 부분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의 서구와의 접촉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행운도 따랐다. 왜냐하면 가토 슈이치의 지적처럼 19세기 들어와 본격적으로 서양인이 일본 해안까지 오면서 그들이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 이후 행하였던 방식대로 일본에게도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었지만,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영국과 프랑스는 러시

아와 크립전쟁(1853-56)을 치렀고, 또한 이후 프랑스는 프로이센과 보불전쟁(1870)을 치렀고, 미국은 남북전쟁(1861-1865) 중이었기 때문에 “서양이 일본을 침략할 만한 처지가 못 되었다”(15-16) 상황은 서구가 일본에 대해 가졌던 관심을 군사적 무력을 통해 실현시키기보다는 관심의 차원에서만 계속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일본에 대한 서구의 관심을 바탕으로 20세기 들어와서 일본은 서구 문물의 수용의 차원을 넘어 서서히 서구로의 자국 문화의 소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 같은 국제정치 환경의 차이는 한국 문학과 일본 문학의 세계화의 양적인 차이로도 이어진다. 서구로부터의 관심이 계속 이어졌던 일본의 경우 20세기 들어서 일본어 서적의 외국어 번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반면, 한국 문학의 경우 1889년 미국에서 출간된 *Korean Tales*(『한국 민담집』) 이후로 100년 동안 양적인 면에서 일본과 큰 차이를 보인다. 한국문학번역원 윤지관 원장의 지적처럼, 우선 양적인 면에서 “90년대 초반 이미 2만 종 이상을 외국어로 번역한 일본과 겨우 1천5백여 종을 번역한 한국의 번역 현실은 견주는 것이 무의미 할 정도로 그 격차가 매우 크다”(『문학의 세계화』 2006년 8월 17일). 물론 이 같은 격차는 20세기 식민지 경험과 전쟁의 상흔으로 민족사의 단절을 겪은 한국의 경우와, 역사적 단절을 겪지 않았던 일본의 상황과의 차이에 기인하는 부분도 크다. 또한 2차 대전의 막을 내리게 한 원폭투하로 인해 일본이 전쟁의 피해자로 바뀌면서 일본에 대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일정 부분의 도덕적 책임감 또한 일본 문화와 문학에 대한 미국의 관심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이 같은 면은 1세대 일본 문학 영어 번역가들 중에 도널드 킨(Donald Keene)이나 에드워드 사이덴스티커(Edward Seidensticker), 하워드 히벳(Howard Hibbett) 같은 대표 번역가들이, 일본의 패전을 기점으로 일본어 교습을 받고 일본에 주둔했던 미 해병대 출신이거나, 일본어를 일찍 접한 후 전쟁 때 통역장교로 복무하면서 일본에 머무는 동안 일본 문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일본 문학을 전공해서 학자로 활동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덧붙여, 일본 문학의 세계화에 대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관심과 노력도 이 같은 양적 차이로 나타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서 수행한 1996년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이미 10년이나 지난 자료지만, 일본 정부

와 민간단체들이 오래전부터 전방위적 노력을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정부차원의 노력을 살펴보면, 문화청에서 공익법인으로 설립한 ‘국제언어문화진흥재단’이 주관하는 일본 문학의 번역 및 해외 보급 사업을 들 수 있고, 외무성 문화교류부의 문화 제1과 및 문화 제2과에서 맡고 있는 국제문화교류 사업으로서의 일본 문화 해외소개, 그리고 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본 문화 교류 사업과 번역 후원 프로그램, 일본연구 지원 프로그램도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이와 함께, 195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서구의 주요 문학작품을 유네스코 대표문학선집(UNESCO Collection of Representative Works) 시리즈로 번역하고 있는 일본 유네스코의 문학교류사업도 주목할 만하다. 일본 문학을 전공한 대표적인 1세대 일본 문학전공 미국학자인 도널드 킨 외 여러 학자들이 1956년 공동으로 편찬한 영문판 *Anthology of Japanese Literature from the Earliest Era to the Mid-Nineteenth Century*(『일본 고대에서 19세기까지의 문학작품선』)도 일본의 유네스코 대표문학선집의 일환으로 출판되었다. 민간단체의 차원에서는 1990년 설립된 ‘기업메세나의회’가 일본 문화의 소개에 이바지해왔고, 1974년 설립된 ‘도요다 재단’(Toyota Foundation)은 특히 일본어 서적의 동남아시아어 번역 및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1995년 설립된 ‘국제언어문화재단’도 일본 문학을 세계에 알리는 작업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김용범 외 63-108).

지난 수십 년간 이루어진 이 같은 관심과 노력은 오늘날 일본 문학의 세계화의 결실을 거두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제도적, 물질적 지원 역시, 번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번역가의 역할이 아니었다면 지금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 문학의 영어 번역의 경우, 이들 번역가들의 역할을 살펴보면 몇 가지 구체적인 공통점과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 3. 일본 소설의 영어 번역가들

일본 문학의 세계화에 가장 기여한 번역가를 손꼽으라고 한다면 그 판단 기준의 주관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널드 킨(Donald Keene, 1922-)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교 일본 문학 교수로 있는 도널드 킨 교수는 무엇보다도 1986년 자신의 이름을 딴 ‘도널드 킨 일본문화센터’(Donald Keene Center of Japanese Culture)를 컬럼비아 대학교에 설립해서 미국 대학과 공공기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일본어 교육 및 일본 문화 홍보에 큰 기여를 해 오고 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일본의 저명 작가, 화가, 배우, 작곡가 등 다방면의 문화 전문가들의 초청강연을 마련하고 일본 문화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학술대회, 공연, 전시회 등을 통해 미국 일반 대중과 일본 문화와의 간격을 좁히는 노력을 하고 있다.

번역의 측면에서 ‘도널드 킨 일본문화센터’는 일본 문학의 세계화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해 왔다. 이곳 센터에서는 일본 고전 또는 현대 문학의 뛰어난 번역 작품 번역가에게 매년 6천불의 상금과 함께 ‘Japan-U. S. Friendship Commission Prizes for the Translation of Japanese Literature’라는 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 상의 수상자들의 명단만 보아도 오늘날 일본 현대 문학의 세계화에 기여하는 번역가들의 현황과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도널드 킨 교수를 1세대 일본 문학 영어 번역가로 손꼽는 이유는 번역가로서 뿐만 아니라 일본 문학의 서구 수용 초기 단계에 일본 문학 연구의 토대를 쌓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번역가로서 도널드 킨 교수는 1960년대부터 가와바타 야스나리 뿐만 아니라 미시마 유키오(Mishima Yukio)와 아베 고보(Abe Kobo), 17세기 에도 시대(17-19세기)의 대표적인 하이쿠 시인 바쇼(Basho)의 작품들도 번역했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업적으로, 일본 문학과 문화를 주제로 하는 39권 이상의 학술서 라고 할 수 있다. 대표 연구서로는 *Japanese Literature: An Introduction for Western Readers*(1955), *Modern Japanese Literature: An Anthology*(1956), *Major Plays of Chikamatsu*(1961), *Twenty Plays of the No Theatre*(1970), *World Within Walls: Japanese Literature of the Pre-Modern Era 1600-1867*(1976) 등이 있는데, 그 출판시기를 보면 영어권에서 이루어진 초기 일본 문학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문학 장르별로 구분해서 총 4권의 ‘일본 문학 시리즈’로 출판된 *Dawn to the West: Japanese Literature in the Modern Era*(1987)는 영어권에서 이루어진 일본 문학 연구의 집대성이며, 이후 일본 문학 연구의 본격적인 장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이 시리즈의 마지막 두 권인 1998년과 1999년 컬럼비아 대학교 출

판사에서 나온 ‘제3권: 소설’과 ‘제4권: 시, 연극, 비평’은 각각 1329쪽과 687쪽에 이르는 등 그 분량도 상당히 방대하다. 서구 학계에서 일본 문학의 가장 권위 있는 전문가로 인정받는 도널드 킨 교수는 일본 문학과 문화에 기여한 공로로 2002년 일본 정부로부터 가장 명예로운 ‘Person of Cultural Merit’(文化功勞者) 훈장을 수상했다. 도널드 킨 교수의 일본어 실력은 그가 직접 일본어로 쓴 일본 문학에 대한 비평서가(이후 *Travellers of a Hundred Ages*로 번역되어 미국에서 출판됨) 1985년 ‘요미우리 문학상 평론부문’에 선정된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이 글의 서론에서 잠시 언급했다시피, 도널드 킨 역시 일본과의 인연은 20세기 정치·역사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도널드 킨도 미 해군에서 운영하는 볼더(Boulder)시의 ‘해군 일본어 교습소’(Navy Japanese Language School) 출신으로, 여기서 일본어를 배운 후 2차 대전에 정보장교로 참전했다. 전쟁 후 컬럼비아 대학교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일본 교토 대학교에서 수학한 그는 이후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18세기 일본 극작가 치카마츠(Chikamatsu)의 인형극에 관한 논문으로 1952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5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컬럼비아 대학교 동아시아학과에서 일본 문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일본 문학 연구에 몸담아 왔다.

도널드 킨 교수의 이 같은 행보가 중요한 이유는, 1세대 일본 문학 연구자들 대부분이 도널드 킨 교수가 거쳐갔던 과정과 유사한 길을 통해 일본 문화를 접하고 일본 문학을 전공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단순히 이방인의 관점에서 일본 문화와 문학을 학습하는 수준을 넘어서, 일본 현대사의 중요한 한 부분을 함께 경험하고 현대사의 형성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는 공동체 의식이 일본 문학에 대한 깊은 이해뿐만 아니라 일본 문학 번역가들 서로 간에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도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번역가들 사이의 유사성과 특수성이 일본 문학의 세계화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일본의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들의 영어 번역가들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3.1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 Kawabata Yasunari: 1899-1972)의 경우

1968년 일본 작가로는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가와바타 야스나리는 일본 근대문학의 대표 작가라고 일컬어지며, 서구 독자들에게 가장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일본 작가 중에 한 사람이다. 가와바타 야스나리는 한국에서

의 일본 문학의 복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1945년 해방 직후로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일본 문학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한국에서 공식적인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으나 “일본 문학이 도덕적 잣대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학적 층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1968년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그 계기를 이룬다. 수상작인 『설국』을 다룬 정명환, 김양수 등의 글에서 일본 소설은 비로소 예술적 감상물로서의 시민권을 얻는다”(윤상인 20). 이 같은 상황은 영어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본에 대해 한국이 가지고 있던 역사적 특수성과는 다르지만, 서구에서 바라보던 일본 문학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노벨상 수상 이전까지만 해도 여전히 동양에 대한 서양의 오리엔탈리즘적 인식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면에서 가와바타 야스나리 작품의 영어 번역은 일본 문학의 영어권 수용의 의미 있는 첫 단계라고도 할 수 있으며,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작품을 영어로 번역했던 번역가들 역시 가와바타 야스나리 뿐만 아니라 서구 문화권에서 일본 문학의 초기 수용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의 표는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주요 소설의 영어 번역본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주요 소설의 영어 번역 현황〉

일본어 제목 (출판연도)	영어 번역본 제목 (초판 번역본 출판연도)	번역가	출판사
伊豆の踊子 (1926)	Izu Dancer & Other Stories (1964)	Edward G. Seidensticker	Tuttle Publishing
淺草紅団 (1930)	The Scarlet Gang of Asakusa (2005)	Alisa Freedman	Univ. of California Press
雪國 (1935-37, 1947)	Snow Country (1956)	Edward G. Seidensticker	Knopf
名人 (1951-54)	The Master of Go (1972)	Edward G. Seidensticker	Knopf
千羽鶴 (1949-1952)	Thousand Cranes (1959)	Edward G. Seidensticker	Knopf
山の音 (1949-1954)	The Sound of the Mountain (1970)	Edward G. Seidensticker	Knopf
みづうみ (みずうみ) (1954)	The Lake (1974)	Reiko Tsukimura	Kodansha Int'l (Toyko/New York)
眠れる美女 (1961)	The House of the Sleeping Beauties (1969)	Edward G. Seidensticker	Kodansha Int'l
古都 (1962)	The Old Capital (1987)	J. Martin Holman	North Point Press
美しさと哀しみと (1964)	Beauty and Sadness (1975)	Howard Hibbett	Knopf
掌の小説 (1964)	Palm-of-the-Hand Stories (1988)	Lane Dunlop, J. Martin Holman	North Point Press

위의 표를 통해서 다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출발어 텍스트가 출판된 후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번역본이 출간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시기적 근접성은 무엇보다도 당시 여전히 동양문학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적 사고에 젖어있던 서구의 시각을 고려하면, 1920-30년대 작품들 중 많은 부분이 1950-70년대에 번역출판 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오늘날 문학 번역 텍스트의 생명력은 출판되는 타이밍에 있다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지적은 크게 틀리지 않다. 비록 서로가 살아가는 공간적 환경은 다르지만, 작가가 겪었던 시대적 환경을 나름대로 공유할 수 있는 동시대의 외국 독자들의 존재를 고려한다면 출발어 텍스트의 출판시기에 최대한 근접한 번역 텍스트의 필요성은 상당히 유효하다.

둘째, 가와바타 야스나리 소설의 번역가를 살펴보면 특정 번역가에 의한 독점현상이 두드러진다. 앞서 언급한 도널드 킨이 일본 문학 전반에 대한 서구의 관심을 학문적 실체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면, 에드워드 사이덴스티커(Edward Seidensticker)는 특정 작가에 대한 서구의 관심을 성공적으로 집약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가와바타 야스나리 작품의 세계화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에드워드 사이덴스티커는 일본 소설 번역에서 특정 번역가가 특정 작가 작품의 번역을 전담하는 전례를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서 에드워드 사이덴스티커는 1968년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노벨문학상 수상식에 작가로부터 초청받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다. 물론 시기적으로 에드워드 사이덴스티커가 번역가로 활동하던 1960-70년대만 하더라도 일본 문학을 전공하는 번역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처럼 특정 번역가가 특정 작가를 독점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지만 1990년대 이후로는 이 같은 작가 독점 현상은 점점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왜냐하면 작가 입장에서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번역가 군이 넓어짐에 따라서 굳이 한 사람의 특정 번역가에게만 의존해야 하는 필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며, 오히려 출판시장의 상업화로 인해 출판사의 특정 작가 독점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앞서 살펴보았던 도널드 킨의 경우처럼 에드워드 사이덴스티커의 일본 문학과의 인연 역시 시대의 정치·역사적 환경의 영향을 받았다. 콜로라도 대학교 경제학과로 진학할 때까지만 해도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던 사이덴스티커는, 졸업 후 콜로라도 대학교 도서관의 사서로 일하

다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미 해군의 일본어 강습소가 콜로라도 대학교가 있는 볼더시로 옮겨오게 되자 이곳에서 1942년부터 1년 반 동안 일본어 강습을 받게 되었다. 이곳에서 그는 동료학생인 도널드 킨을 처음으로 만났다. 과정을 마치고 미 해군 일본어 통역 장교로 임관한 그는 진주만으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다가 일본의 항복 후 1945년 9월 주둔군의 일원으로 일본에 첫 발을 내디뎠다. 그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일본과의 첫 인연을, 대학 도서관 사서로 일하고 있던 당시 징병통지서를 받고 신체검사에 합격하고 나서 고민하던 그에게 해군 일본어 강습소는 자신의 시력 장애에도 불구하고 장교로 임관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거기서 ‘징병에 대한 두려움의 해답’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다(사이텐스티커 41).

일본의 첫 번째 노벨문학상 수상자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이텐스티커의 일본에 대한 관심이 이 같은 시대의 정치·역사적 맥락의 부산물이라는 점은 상당히 아이러니컬하다. 진주만 공격 이후 미국의 주적으로 등장한 일본에 대항해서 미국 정부는 적에 대한 정보전의 차원에서 일본어 통역장교 양성에 상당히 적극적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비록 전쟁이라는 유사한 경험을 20세기에 함께 겪었던 한국과 일본에 대해 미국이 각각 다른 차원의 관심을 보였던 배경과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바로 아래에 나와 있듯이, 일본 소설의 영어 번역가들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영국이나 다른 영어권 국가 출신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도 부분적으로 이 같은 상황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대표 소설들을 번역한 번역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일본 문학을 전공한 도착어권 현지 학자들임을 알 수 있다.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을 가장 많이 번역한 에드워드 사이텐스티커는 스탠포드 대학교, 미시간 대학교 교수를 거쳐서 컬럼비아 대학교의 일본 문학 교수로 활동했으며, 알리사 프리드먼(Alisa Freedman)은 현재 오레곤 대학교 동아시아학과에서 일본 문학 교수로 있다. 또한 레이코 츠키무라(Reiko Tsukimura)는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비교문학 박사학위를 받고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미네소타 대학교 교수를 거친 후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교에서 21년간 일본 문학 교수로 재직했다. 제이 마르틴 홀만(J. Martin Holman)은 유타 주 브리검영 대학교에서 학부 때부터 일본 문학을 공부하고, 일본에서 선교사 활동도 한 후 캘리포니아 대학교(버클리)에서 일본 문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

고 현재 미주리 대학교에서 일본 문학 교수로 있다. 그는 또한 일본의 전통 인형극인 분라쿠 전수자이기도 하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일본어를 공부한 하워드 히벳(Howard Hibbett)은 대표적인 1세대 일본 문학 번역가들처럼 1942-46년까지 미 국방부 일본어 통역관으로 근무했다. 전쟁 후 하버드 대학교에서 일본 문학 박사학위를 받고 UCLA와 하버드 대학교에서 일본 문학 교수로 활동했다.가와바타 야스나리 번역가들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온 레인 던롭(Lane Dunlop)은 이들 중에서 유일한 프리랜서 번역가인데 1985년 ‘The Japan-U. S. Friendship Award for Literary Translation’의 수상자이다. 이들 번역가들의 가장 두드러진 공통점은 대부분 도착어권에서 일본 문학을 연구한 현지출신 학자들이거나 최소한 도착어 국가에서 대학부터 수학했던 일본 출신 학자라는 점이다. 이것은 번역에서, 특히 외국 문학의 현지 수용의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시사하는데, 도착어권 현지의 번역가의 절대적 필요성은 오에 겐자부로외의 경우를 분석한 후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다.

### 3.2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 Oe Kenzaburo: 1935-)의 경우

1994년 일본인 소설가로는 두 번째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오에 겐자부로는 일본 지식인을 대표하는 작가로 손꼽힌다. 지난 천여 년 동안 신격화된 존재로 군림하던 천황이 1945년 원폭 투하 후 일본의 항복과 함께, 평범한 인간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보고 받은 충격과 전쟁에 대한 환멸로 인한 죄의식으로 점철된 그의 글쓰기를 노벨상 위원회는 수상자 선정문에서 “as a way of exorcising demons”라고 설명하고 있다(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1994). 그런 측면에서 “일본 작가의 양심으로 불리는 존재답게 노벨상 수상기념 강연에서도 (전쟁 책임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보이는 일본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 자신을 ‘전후 민주주의 작가’라는 규정을 통해 일본을 넘어 세계로 발신하는 주체로서 인식한”(김영옥 150) 오에 겐자부로의 지성적 측면을 노벨상 선정위원회에서 높이 산 것으로 보인다.

번역의 측면에서 본다면, 오에 겐자부로는 한국에서 일본 소설의 붐을 본격적으로 일으킨 작가이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과 『상실의 시대』가 각각 1988년과 1989년 한국어로 번역, 출판되면서 상당한 관심을 끌었던 것

을 시작으로, 1994년 오에 겐자부로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함으로써 한국에서는 본격적인 일본 소설 붐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 무렵 노벨문학상 수상작에 대한 한국 출판계의 상업적 집착은 결과적으로 수준 낮은 번역 텍스트를 양산했고, 한국에 소개된 오에 겐자부로 소설의 번역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에의 노벨상 수상) 당시 한국의 언론은 오에의 문학세계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관심이 있었던 것은 일본 작가가 받는 노벨상을 우리는 왜 못 받는가에 대한 담론이 더욱더 한국의 독자들의 시선을 끌었을 것이다”(신인섭 95). 그런 상황에서, 1994년 10월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되고 곧바로 그의 대표작들이 여러 출판사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출판되었는데 그 상황은 열악했다. “오에 겐자부로의 『일상생활의 모험』에 관해서만 말하자면 1994년에만 3개의 출판사에서 번역서가 거의 동시에 출판되었다. ... 노벨문학상 수상 발표 시기를 고려하면 1개월 만에 번역에서 인쇄, 발행 등 출판의 전 과정이 진행되었다”(성혜숙 146-7). 이 같이 한국에서의 급조된 방식의 수용과는 달리 미국에서의 오에 겐자부로 작품의 번역과 수용 과정을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표 2: 오에 겐자부로의 주요 소설의 영어 번역 현황〉

일본어 제목 (출판연도)	영어 번역본 제목 (초판 번역본 출판연도)	번역가	출판사
芽むしり仔撃ち (1958)	Nip the Buds, Shoot the Kids (1995)	Paul St. John Machintos, & Maki Sugiyama	Marion Boyars Publishers
個人的な体験 (1964)	A Personal Matter (1968)	John Nathan	Grove Press
万延元年のフットボール (1967)	The Silent City: A Novel (1974)	John Bester	Kodansha Int'l (Tokyo/New York)
われらの狂氣を生き延びる道を教えよ (1969)	Teach Us to Outgrow Our Madness (1977)	John Nathan	Grove Press
ピンチランナー調書 (1976)	The Pinch Runner Memorandum (1994)	Michiko N. Wilson	M. E. Sharpe
新しい人よ眼ざめよ (1983)	Rouse Up O Young Men of the New Age! (2002)	John Nathan	Grove Press
人生の親戚 (1989)	An Echo of Heaven (1996)	Margaret Mitsutani	Kodansha Int'l
静かな生活 (1990)	A Quiet Life (1996)	Kunioki Yanagishita, & William Wetherall	Grove Press
宙返り (1999)	Somersault (2003)	Philip Gabriel	Grove Press

위의 제시된 도표의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흥미로운 점으로는, 첫째, 가와바타 야스나리 경우와 비교해보면, 출발어 텍스트가 나온 후 영어 번역 텍스트가 나오기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짧아졌다는 점이다. 이는 40-50년대 작품 활동을 한 가와바타 야스나리에 비해 60-70년대 활동을 한 오에 겐자부로가 훨씬 더 일본 문학에 호의적인 출판 환경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벨문학상 선정문에서도 언급된 오에 겐자부로의 세 편의 작품 중에서 영어로 번역된 두 편의 작품인(나머지 한 편은 스웨덴어로 번역된 작품), *A Personal Matter*(『개인적 체험』)와 *The Silent City: A Novel*(『만엔 원년의 풋볼』)은 각각 1964년과 1967년 일본에서 나왔는데, 이 소설의 영어 번역 텍스트가 각각 1968년과 1974년에 출판된 것으로 보아 시기적으로 상당히 근접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번역 텍스트 출판의 시기적 근접성은 동시대 독자들에게 작품이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그리고 도착어 독자들이 작가를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세계화 전략이 될 수 있다.

둘째, 출판사의 역할을 들 수 있다. 가와바타 야스나리 작품의 번역 텍스트가 대부분 뉴욕에 있는 크노프(Knopf) 출판사에서 나왔다면, 오에 겐자부로의 경우는 작품 중 많은 부분이 뉴욕의 그로브(Grove) 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이 같은 특정 작가의 특정 출판사 전속 현상은 작가의 소개와 홍보에 상당히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한국 문학의 세계화에 대한 논의에서도 대형출판사의 영향력과 중요성에 대한 언급이 계속되고, 많은 부분 그 논의의 정당성을 인정받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1951년 설립된 그로브 출판사의 경우, 1968년 오에 겐자부로의 *A Personal Matter*를 출판할 당시만 해도 크노프와 같은 대형출판사 그룹에 속한다기보다는 문학적인 실험성을 강조하는 신진 출판사에 가까웠다는 점이다. 이곳에서는 다른 출판사들에서 퇴짜를 놓았던 사무엘 베케트(1969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의 대표작 *Waiting for Godot*를 이미 1954년에 출판했고, 60년대 이곳에서 발행했던 문학잡지 *Evergreen Review*에는 알베르 카뮈(Albert Camus, 1957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베르톨트 브레히트(Bertolt Brecht), 에드워드 올비(Edward Albee) 등의 작품들이 실렸다. 1959년 D. H. 로렌스(D. H. Lawrence)의 *Lady Chatterley's Lover*와 1961년 헨리 밀러(Henry Miller)의 *Tropic of Cancer*도 여기서 출판되었다. 이런 점을 고려해볼

때 출판사의 크고 작음에 앞서서 문학에 대해 진지하고 전문적인 관심과 안목을 가질 수 있는 출판사 확보가 훨씬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일본 문학의 세계화 과정에서 출판사의 역할을 논의할 때 빠지지 않는 출판사는 바로 ‘고단사 인터내셔널’(講談社, Kodansha International)이다. 오에 겐자부로(*The Silent City: A Novel*과 *An Echo of Heaven*)도 이곳에서 출판되었다. 1909년 설립된 일본 최대의 출판사 ‘고단사’의 자회사로 1963년 도쿄에 설립된 ‘고단사 인터내셔널’은 이후 뉴욕에 ‘고단사 아메리카’(Kodansha America)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일본 문학의 미국 출판시장 진입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가와바타 야스나리와 오에 겐자부로 뿐만 아니라 다른 일본 현대소설가들의 작품들 역시 이곳을 통해 미국 출판시장에 처음 진입한 사례가 상당히 많다. 또한 ‘고단사’에서 1990년부터 일본 문학 작품의 외국어 번역가에게 매년 수여하는 ‘일본 문학 번역 노마상(Noma Award)’은 이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예가 되었다(Yoshizaki 32). 무라카미 하루키의 1997년 소설 『태엽 감는 새』(*Wind Up Bird Chronicle*)를 영어로 번역한 제이 루빈(Jay Rubin)도 노마상의 2003년 수상자이다.

특히 ‘고단사 인터내셔널’의 출판전략 중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철저한 현지화 작업이다. “‘고단사 인터내셔널’의 외국 소개 작품 선정 기준은 번역가(주로 교수)들이 직접 선택하는 경우가 60%이며, ‘고단사’ 자체기획은 30% 정도이다. 따라서 작가선정은 일본 내에서의 지명도와는 별개이다. 이는 일본의 베스트셀러가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될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김용범 외 109). 이 같은 현지화 작업의 과정을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영향력이 서로 다른 두 문화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문학번역은 새로운 글쓰기 과정이라기보다 철저한 문화시장 공략의 전략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오에 겐자부로 작품의 번역가들을 살펴보면,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번역가들과 유사성과 차별성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유사성으로는 작품 수용의 초기 단계에 두드러지는 특정 번역가의 기여라고 할 수 있다. 오에 겐자부로의 경우 존 네이든(John Nathan)을 들 수 있는데, 하버드 대학교에서 일본 문학을 전공한 후 동경대학교 정규과정에 입학한 최초의 미국인으로 기록되는 그는 현재 캘리포니아 대학교(산타 바바라)의 일본 문화 교수로 있다. 미시마 유키오의 작품들도 번역한 그는 오에 겐자부로 작품 번역의 공로를 인정받아 1994년 오에

겐자부로 노벨상 수상식에 작가의 초청을 받았다.

가와바타 야스나리 경우와의 차별성은 우선 번역가군이 다양해진 점과,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경우에는 대체로 1세대 일본 문학 번역가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는데, 이들의 일본 문학과 인연이 대부분 2차 대전을 전후로 한 정치·역사적 환경의 부산물인 경우가 많았다면, 오에 겐자부로의 경우는 2세대 일본 문학 번역가들이 존재가 두드러진다. 특히 이들은 1세대 번역가들과는 달리 대학에서부터 일본 문학이나 동양문학을 전공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런던대학교 동양학과를 졸업한 존 베스터(John Bester)는 일본 문학 번역가로 활동하며 오에 겐자부로의 작품 외에도 다양한 일본 현대작가들의 작품을 번역했는데, 미시마 유키오의 *Acts of Worship: Seven Stories*로 1990년 제1회 ‘일본 문학 번역 노마상’을 수상했다. 미치코 윌슨(Michiko Wilson)은 텍사스 대학교에서 비교문학 박사학위를 받고 버지니아 대학교 일본 문학 교수로 있다. 마가렛 미츠타니(Margaret Mitsutani)는 도쿄의 ‘共立女子大學’(Kyoritsu Women's University)의 영문과 교수로 있으면서 일본 현대 문학을 번역하고 있다. 윌리엄 위더롤(William Wetherall)은 캘리포니아 대학교(버클리) 동아시아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받고 대학 강의와 일본 문학 프리랜서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필립 가브리엘(Philip Gabriel)은 코넬 대학교에서 일본 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애리조나 대학교 일본 문학 교수로 있다. 그는 2세대 일본 문학 번역가들 중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번역가로, 구로이 센지(Kurio Senji)의 *Life in the Cul-De-Sac* 번역으로 ‘도널드 킨 일본문화센터’에서 수여하는 ‘Japan-U.S. Friendship Commission Prize for Translation of Japanese Literature’를 2001년 수상했고, 2006년에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해변의 카프카』(*Kafka on the Shore*) 영어 번역으로 ‘PEN/BooL-of-the-Month Club Translation Prize’를 수상했다. 그는 이후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의 대표 번역가로 유명해졌다.

지금까지 가와바타 야스나리와 오에 겐자부로 소설의 영어 번역가들과 초기 일본 문학 영어 번역가인 도널드 킨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일본 문학의 미국적 수용에서의 번역가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국 출판시장에서 미국독자들이 낯선 외국 문학, 특히 동아시아권의 문학작품을 아무 선행적 지식도 없

는 가운데 서점에서 우연히 선택해서 그 작품에 흥미를 느끼게 되고, 독자로서의 관계를 계속 쌓아나가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작품과 도착어 독자 사이에 다층위적 가교 역할을 할 도착어권 번역가의 존재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도착어권 번역가의 역할을 통해 대학 강의실에서의 논의가 강의실 밖의 독자에게까지 확장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아래는 버지니아 대학교에 있는 미치코 윌슨 교수의 수업에서, 어느 학생이 윌슨 교수가 영어로 번역, 출판했던 오에 겐자부로 1976년 소설 *Pinch Runner Memorandum*을 수업 과제로 읽고 인터넷 서점인 아마존(Amazon.com) 웹 사이트에 올린 인상적인 서평이다.

“I read *Pinch Runner Memorandum* in the fall of 2001. It was the final book for the assigned reading for a class taught by the translator, Professor Michiko Wilson. After reading the novel I became a single goose bump as the significance sunk in. I later found out that this book was the final in a series often called the ‘Handicapped Son’, and I have read the rest of the series that has been translated. It is comparable to Mishima’s tetralogy, except that it is much less trite and self-indulgent.

Oe encompasses all of humanity in *Pinch Runner Memorandum* by delving into the marginal world and explicating how it reveals the darker side of society led by a force seeking chaos through subliminal tyranny. Similar to Oe’s parody of Mishima in *One Day He Himself Shall Wipe My Tears Away*, Oe takes the role of court jester and reveals the panting, self-destructive struggle of humanity through his use of grotesque realism as a man and his son attempt to save the world from the annihilation it so desperately seeks. They brave savage riots of students from the left and right, nuclear terrorists, and maniac capitalists. One common trait among all these people is that suicide is a foregone conclusion for victory. Those who are not willing to die condemn themselves to defeat” (Amazon.com)

이 같은 서평이 가져다주는 영향력이나 홍보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대학에서 수업교재로 읽은 작품에 대한 이 같은 서평이 다른 잠재적

독자들의 작품 수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작품의 의미와 가치를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유포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강의실을 통해서 같은 재생산 활동이 시작되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일본 문학의 미국수용에 나타나는 도착어권 번역가의 중요성은 외국 문학의 한국적 수용 과정을 살펴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한국에서 외국 문학의 근대적 수용을 살펴보면, 이하윤, 이선근 등 동경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1926년에 결성한 해외문학과의 역할은 선구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이후 계속해서 이루어진 서구 문학의 번역과 수용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한국 대학에서 외국 문학을 가르치는 학자들이 대부분이었다. “50년대 후반기부터는 주로 외국 문학 전공자(교수)들이 번역의 주역을 맡게 되는데, 50년대를 담당한 주역들은 소위 해방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당시 30세 전후의 원기 발랄한 학자들 이었다”(김병철 25).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들 학자들이 작품을 번역하고, 강의실에서 작가와 작품을 학생들과 함께 읽고 토의하고, 그들에 대한 소개를 잡지나 신문에 게재하고, 때로는 외국 작가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작품의 중요성과 문학적 가치를 학술지나 학술서적을 통해 알리는 등과 같은 노력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외국 문학의 수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왔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도착어권 번역가들의 가교 역할을 통해 출발어 텍스트가 궁극적으로 일반 독자들에게까지 연결될 수 있었다. 이 같은 현상은 일본 문학의 미국 출판시장 수용 과정에서나, 한국에서의 외국 문학의 수용 과정에서나 모두 동일하다.

#### 4. 맺는 말

한국 문학의 세계화에 대한 논의에서 비교대상으로 자주 등장하는 일본 문학의 경우는 한국과 일본이 처했던 시대의 정치·역사적 상황의 차이로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 또한 일본 문학의 세계화 과정을 그대로 한국 문학이 답습한다고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근거도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문학의 세계화에서 볼 수 있는 문화전략으로서의 번역가의 역할은 오늘날 한국 문학의 세계화에 절실히 보인다.

일본 문학의 세계화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외국 문학, 특히 소수 문학의 영어권—여기서는 미국 출판시장—수용에 있어서 작품의 번역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작품을 가르치고, 소개하고, 홍보하고, 작품의 가치를 학술적으로 논의하고, 다른 학자들과 그 같은 관점을 공유하면서 일반 독자들에게까지 연결해 줄 수 있는 도착어권 출신의 전공 학자들의 필요성과 역할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들의 역할을 통해 출발어 텍스트와 도착어권 독자들 사이의 문화적 간격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된다. 특히 도널드 킨이나 에드워드 사이텐스티커, 존 네이든처럼 강의실 안과 밖에서 이 같은 역할을 하면서 작품을 알리고 작품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현지의 출판사 및 출판사 편집장들과도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앞으로 번역할 작가 및 작품을 선정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일본 문학의 효과적인 미국 출판시장 수용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번역가들이 없었더라면 일본 소설의 세계화는 결코 오늘날과 같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일본 문학의 미국 수용 과정에서 두드러진 번역가의 역할은 단순히 좋은 번역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좋은 문학 작품을 뛰어나게 번역하는 것만으로는 서로 다른 영향력을 가진 문화 사이에서 효과적인 수용을 기대하기는 역부족이다. 이들 번역가가 수용의 주체가 되어 훨씬 더 폭넓고 다양한 층위에서 일본 문학 수용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한국 문학의 세계화 과정에서도 도착어권 번역가가 작품을 선정하고 출판사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작품의 홍보 및 학술적 논의를 이끌어 내고 도착어권 독자와의 간격을 좁힐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소설 쓰기가 문예창작의 영역이라면, 번역은 필연적으로 문화전략의 영역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김병철. 1998. 『한국현대번역문학사연구』. 서울: 을유문화사.  
 김영옥. 2005. 「탈 ‘전후’와 ‘현대’의 경계-오에 겐자부로와 무라카미 하루키를 비교하면서」. 『비교문학』 36, 147-166.

- 김용범 외. 1996. 『일본 문학의 세계화과정 기초연구』. 연구자료집.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제이 루빈. 2003. 『하루키 문학은 언어의 음악이다』. 이나경 역. 서울: 문학사상사.
- 마루야마 마사오, 가토 슈이치. 2003. 『번역과 일본의 근대』 임성모 역. 서울: 이산.
- 마치엔 외. 2006. 『노벨문학상 100년을 읽는다』. 최옥경, 한지영 역. 서울: 지상사.
- 「‘문학의 세계화’ 일본이 한국의 10배 훌쩍」. 헤럴드 경제. 2006년 8월 17일자.
- 봉준수, 권석우. 2004. 「한국 문학의 영어 번역 현황-통계를 ‘읽는’ 몇 가지 시각」. 『한국 문학의 외국어 번역』.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44.
- 에드워드 사이덴스티커. 2004. 『나는 어떻게 번역가가 되었는가?』. 권영주 역. 서울: 씨앗을 뿌리는 사람.
- 성혜숙. 2008. 「해석으로서의 번역-오에 겐자부로에의 ‘일상생활의 모험’과 여행」. 『번역과 일본 문학』. 김춘미 편저. 서울: 문 출판사. 129-156.
- 신인섭. 2003. 「‘노벨상’ 작가 오에 겐자부로가 발신하는 것-노벨상 담론의 이데올로기적 독해」. 『일본어문학』 16, 83-102.
- 윤상인 외. 2008. 『일본 문학 번역 60년 현황과 분석』. 서울: 소명출판사.
- 이근희. 2007. 「번역과 한국 및 일본의 근대화」. 『번역학연구』 8:2, 103-132.
- 이태동. 2000. 「한국 문학 세계화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세계비교문학연구』 4, 30-55.
- 정여울. 2007. 「해석을 넘어 창조와 횡단을 꿈꾸다: 한국 문학의 번역, 그 현재와 미래」. 『창작과 비평』 35:4, 97-111.
- 'Book Review of Oe Kenzaburo's *Pinch Runner Memorandum*.' Amazon.com  
<[http://www.amazon.com/Pinch-Runner-Memorandum-Kenzaburo-Oe/dp/1563241846/ref=sr\\_1\\_4?ie=UTF8&s=books&qid=1226035924&sr=1-4](http://www.amazon.com/Pinch-Runner-Memorandum-Kenzaburo-Oe/dp/1563241846/ref=sr_1_4?ie=UTF8&s=books&qid=1226035924&sr=1-4)>
- Crystal, David. 2003. *English as a Global Language*. Second edition. Cambridge: Cambridge UP.
-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1994: Kenzaburo Oe.' Swedish Academy Press Release. 13 October 1994.

<[http://nobelprize.org/nobel\\_prizes/literature/laureates/1994/press.html](http://nobelprize.org/nobel_prizes/literature/laureates/1994/press.html)>

Yoshizaki, Toyo. 2004. "Books Are Silent Ambassadors: The Noma Award for the Translation of Japanese Literature." *Publishing Research Quarterly*. 19:4, 31-36.

[Abstract]

**A Case Study of the English Translators of Japanese Contemporary  
Novels — Translators of Yasunari Kawabata and Oe Kenzaburo**

Lee, Hyung-jin & Hwang, Sunha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critical roles of English translators in the reception and dissemination of the novels of Yasunari Kawabata and Oe Kenzaburo in the United States. The research has found that the first-generation English translators of contemporary Japanese novels came to be in touch with Japanese culture and literature through the personal experience of World War II, and the second-generation translators comprise of mostly American translators who started studying Japanese and Japanese literature in college. Moreover, most of these translators are professors teaching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in American colleges, which highlights the critical role of the translators of the target culture in the process of reception.

The study concludes that various means of introduction and dissemination of Japanese novels by these translators, which aims to bridge Japanese novels and American readers, have critically contributed to the successful reception of Japanese contemporary novels in the North American publication market. These successful efforts include teaching Japanese novels in the classroom, presenting academic papers about Japanese novels and authors, writing newspaper or journal articles about Japanese novels and authors, interviewing these authors for media coverage, etc. which can be accomplished only by these scholar-translators of the target culture. In this sense, translating literature into another language is more than a simple cultural transfer, but inevitably a purposeful cultural strategy.

▶ Key Words: Japanese novels, English translation, globalization, translators, Yasunari Kawabata, Oe Kenzaburo, cultural strategy

이형진

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부 조교수

jinlee@sookmyung.ac.kr

관심분야: 문학번역, 문화번역, 한국 문학의 영역(英譯)

황선혜

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부 교수

hwangsh@sookmyung.ac.kr

관심분야: 영어의 세계화, 사회언어학

논문투고일: 2008년 11월 8일

심사완료일: 2008년 11월 29일

게재확정일: 2008년 12월 10일